

가뭄에 메말라 가는 광주 식수원 동복댐 “절수, 또 절수를…”

시민 절수운동·대책 시행 동복댐 고갈시점 다소 늦춰져
 “최악의 상황 제한급수 피하려면 물 절약 운동 동참을”

심각한 가뭄 속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이 메말라 가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기준 동복댐의 저수율은 25.63%에 불과하다. 지난 달 22-24일 광주·전남 지역에 4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지만 강수량으로는 7.4mm

에 불과, 가뭄 해갈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최악의 저수율 속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일평균 수돗물 생산량은 45만6000t, 둘째 주 45만4000t, 셋째 주 44만7000t, 넷째 주는 44만2000t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월 주별 일평균 물생산량은 첫째 주 49만7000t, 둘째 주 49만7000t, 셋째 주 48만5000t, 넷째 주 48만5000t이었다.

2021년 12월 대비 지난해 12월 생산량 절감률은 첫째 주 8.2%, 둘째 주 8.7%, 셋째 주 7.8%, 넷째 주 8.9%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생산량은 소비량과 직결된다.

광주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동복댐이 고갈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고갈 예상 시점 두달 전인 오는 3월부터 제한급수라는 최후의 방안을 검토했다.

다행히 시민들의 절수운동 참여가 늘고, 주암댐 물 끌어오기 등 각종 대책을 시행하면서 동복댐 고갈시점도 5월 이후로 늦춰졌다.

광주에서는 1992년 12월 21일부터 1993년 6월 1일까지 156일 동안 제한급수가 실시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제한급수가 이뤄진 적이 없다.

그러나 현 시점 가뭄이 지속하고 물 소비량이 늘어난다면 31년 전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암댐 상류에 있는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하기로 한 만큼 주암댐 물을 더 끌어오는 방안을 수자원공사와 협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절수운동과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당초 예상했던 동복댐 고갈시점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물을 아껴쓰지 않는다면 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며 “제한급수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 20% 물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승호기자



구름 속 새해 첫 일출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도리포 유원지에서 시민들이 떠오르는 첫 일출을 보고 있다.

56년 만에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어 기뻐”

9월부터 인왕봉 일대 상시 개방

“1184m 고지를 오르는 탐방객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아홉 달 앞둔 1일 남태한 무등산국립공원 소장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0년째 되는 해에 정상을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등산 정상부는 지난 1966년부터 공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출입이 제한됐으나 올해 9월부터 인왕봉 일대 탐방이 가능해졌다. 광주시가 지난해 말 국립공원공단·제1미사일방어여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다.

인왕봉은 무등산 3대 정상봉(원왕봉·지왕봉·인왕봉)중 하나다. 이곳에선 광주 도심 전체와 전남 담양·화순을 아우르는 경관을 볼 수 있다.

남 소장은 56년 만의 정상부 개방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고지에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안전한 탐방’을 바랐다.

남 소장은 “2013년 당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실무를 담당했다. 최정상부에 군부대가 주둔한 곳은 국내 22개 국립공원 중

무등산이 유일해 (군부대)이전 바람이 간절했다. 10년 만에 상시 개방 소원을 이뤘다”며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온 차가 심한 정상에 많은 탐방객이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걱정된다”며 “요원 배치와 울타리 설치 등으로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생 복원을 통한 ‘무등산 건강성 회복’ 바람도 전했다. 현재 정상부엔 약 377종의 식물이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갈나무·낙엽활엽수 등 4개 군락과 국내 특이종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정상부 출입이 제한돼 정확한 식생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군부대 주둔 동안 주상절리 일부가 깎이거나 식생 환경도 훼손됐다.

임윤희 무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2016년 정상부 복원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식생 현황을 조사했지만 기간이 짧아 1970년대 과거 문헌을 참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생태 환경 조사를 토대로 복원이 이뤄져 정상부가 자연성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지리산처럼 반달가슴곰·산양·여우 등 여러 야생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환기자

홀로사는 65세 이상 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32만1950원 지급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구분짓는 월 소득인정액이 12% 인상된다.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미만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1일 이같이 고시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목적의 급여로, 올해는 매달 32만195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구분 짓는 월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 180만원이었으나 올해 202만원으로 22만원(12.2%)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작년 288만원에서 올해 323만2000원으로 35만2000원(12.2%) 올랐다.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년월일이 1958년 4월이라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는다.

최이슬기자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